전승 위기 '땅설법', 보존 청신호 켜지나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 사업 대상자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승 위기인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보존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 육성 사업' 대상으로 삼척 안정사 '땅설법' 등 21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 육성 사업'은 지역의 가치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각 지역 무형유산 100종목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별로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3년 동안 전승 환경 조성과 전승 체계화에 대한 지원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 주체는 역사, 전승현황, 주변문화 관련 조사 · 연구를 비롯해 현황 및 전승과정 영상기록화 전승자 발굴 · 육성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공모에 총 12개 시 · 도에서 54개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사업 타당성 및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최종 21건이 선정됐다. 이 중 불교 무형유산은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이 유일하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동아시아 유일의 속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학계에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강(講)과 창(唱)으로 전달하면서, 때론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 역할극 등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자들의 교리학습과 아울러 일반인들 대상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땅설법, 국민공모로 선정 '쾌거'
동아시아 유일 속강, 가치 높아
3년 동안 年 최대 2억 원 지원
"보존위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삼척 안정사 땅설법 시연 모습.

땅설법의 구비경전(레퍼토리)은 본전 △석가모니 일대기 △선재동자 구법기 △목련존자 일대기 △성주신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등 5종과 별전 △만석중증도기 △안락국태자경 △태자수대나경 △심청효행록 △삼한세존일대기 △위제희부인만원연기 등 6종이 있다. 본전 · 별전 모두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백중, 수륙재 등서 설행됐으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땅설법 전승자이다. 다여 스님은 이북 지역서 활동했던 강통(講統, 땅설법 법맥 대표) 무명 스님(1910~1988)으로부터 땅설법을 사사했으며,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패와 전법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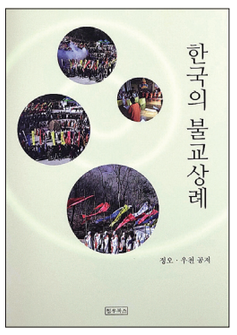
이 같은 1인 전승 상황은 땅설법 보존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땅설법을 연행하는 속강승(俗講僧)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다. 땅설법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 육성 사업' 대상자 선정은 땅설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땅설법을 연구하고 있는 김형근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교수는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는 시 · 도나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전승단체로서 자립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 선정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상례 모든 것을 담아내다

정오 스님 · 이성운 박사, '한국의 불교상례' 발간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조(敎祖)의 독자적인 사상과 교리가 가장 먼저 우선돼야겠지만, 그 만큼 중요한 것이 의례이다. 독창적인 종교 의례는 해당 종교만이 가지는 문화의 소산이자 사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특히, 죽음을 대하는 의례에서는 각 종교만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한국의 불교 상례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상을 담아내고 있을까.

한국전통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스님과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학과 교수가 공저한 〈한국의 불교상례〉는 이 같은 궁금증에 해답을 전한다.

저자에 따르면 불교의 상례는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와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망자의 몸을 처리하면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더 나은 세계로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례행위가 불교 상례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상례〉를 불교 전통의 '다비작법'이라는 표현보다 '상례'라는 일반용어를 채택해 저술한 이유도 여기 있다.

저자들은 1935년 발간된 〈석문의범〉을 바탕으로 19세기 초 백파 긍선(1767~1852)의 〈다비설〉과 〈작법귀감〉, 19세기 후반 해인사에서 간행된 〈다비작법〉을 참고해 재정립했다. 이를 통해

△임종의식 △수계의식 △정화의식 △착복의식 △정좌와 입감 △발인제식 △장법의식 △영혼의식 △칠칠재의로 이어지는 의식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풀어 해설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상례라고 하면 탈상 이전까지의 의례인데, 칠칠재 때까지는 불교 상례라고 보고 칠칠재 형식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체 의식문 원문에 한글음을 달아 가독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따라하며 의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 책의 강점이다.

이에 대해 정오 스님은 "49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를 다시 제시한 이유는 사후 칠칠재의 재공은 망자보다 산자가 공덕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재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염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오 스님은 "책에는 전통 다비문의 명정서규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보면 종사 다음 자리에 염불인(念佛人)이 있고, 관을 사용할 때도 '감'으로 모시는 모습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염불 수행이 지고지선(至高至善)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지리산 쌍계사 · 불일폭포 '명승'된다

문화재청, 9월 14일 지정예고
"역사 · 학술 · 자연 등 가치 커"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 · 인문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경상남도 하동군의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월 14일 밝혔다.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문인묵객(文人墨客)들이 예찬하여 수많은 시문, 여행기 등을 남긴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고려 제21대 왕 희종이 승려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에게 '불일보조(佛日普照)'란 시호를 내린 것에 유래해 지눌이 수도하며 머문 곳 일원을 '불일'이라는 명칭을 붙여 불일폭포, 불일평전, 불일암이라 부르고 있다.

불일사상의 요람인 쌍계사는 724년(신라 성덕왕 23년)에 옥천사로 창건하고 정강왕 때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벽암 대사가 1632년(인조 10년)에 중건한 것이 지금까지 이른다.

한편, 문화재청은 역사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선 · 교 대종장 환성 지안 조명

통도사 · 한국선학회,
9월 30일 추계학술대회



환성 지안(1664~1729, 사진) 스님은 태고 보우에서 청허 휴정으로 이어진 선의 계맥을 이어낸 선사이자 당시 화엄학의 일인자로서 선교를 아우른 당대 선지식이었다. 환성 지안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와 한국선학회(회장 정도)는 오는 9월 30일 오후 1시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환성 지안 스님의 삶과 수행'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여는 학술대회에서는 환성 지안 스님의 생애와 수행, 선시 등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조선 후기 불보사찰 통도사와 순교승 환성 지안'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환성 지안의 선리이해와 그 전승'을, 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원법 스님은 '환성 지안의 선시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통도사는 "환성 지안 선사의 주석도량으로서 통도사는 선사의 삶과 수행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려 뇌원차-천태사상 상관관계는?

천태종, 9월 21일 천태지관차법전승 첫 학술대회

고려의 뇌원차는 공신의 상례와 송(宋)에 예물로 보낼 정도로 귀하게 여긴 차였다. 고려 정종(定宗) 연간에 거란에게 예물로 보내면서 뇌원차의 진가가 드러났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열반 967주기를 맞아 천태지관 사상과 고려 뇌원차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천태종 산하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이사장 무원, 총무원장)는 9월 21일 오후 1시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제1회 천태지관차법전승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의천대각국사 뇌원차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에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대각국사의 천태지관사상과 고려 뇌원차의 관계를 조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석환 국제선차문화연구회장이 '의천대각국사의 뇌원차 연구'를, 의천연구가 이병욱 씨가 '원효의 사상 계승한 의천'을, 허흥식 한국학연구소 명예교수가 '고려 초의 내원차 전승'을, 마스인 동아시아다도연구원장이 '한국 고려시기의 왕조공차'를, 이기운 동국대 학술원 교수가 '천태지관 사상의 현대적 전개'를 각각 발표한다. 천태종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천태지관 수행과 의천대각국사의 천태사상이 고려 뇌원차의 전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피고 선차의 정맥이 어떻게 전승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